

옛 전남도청 추모·기억공간으로 복원

이달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공사 발주·내년 공사 본격화
내년 1월까지 탄흔 2차 감마선 조사…2025년 개관 목표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옛 전남도청복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일 오후 2시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추진경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복원사업 진행 과정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5월 옛 전남도청 탄흔 특별전을 열고 본관 서무과 탄두를 일반인에게 공개한 데 이은 두 번째 공개로 이날 협의회는 “복원 과정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만들어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옛 전남도청은 5·18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추모하며 기억하는 공간으로 복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옛 전남도청 복원범시도민대책위로 구성된 협의회는 2019년 9월부터 복원 자료를 수집하고 기술제출, 제보접수를 지속 추진해 왔다.

특히 협의회는 ‘고층이 이뤄진 공간 안에 서사를 바탕으로 전시 콘텐츠를 구현한다’에 초점을 맞추고 사진 등 5·18 민주화운동 시청각 자료의 복원과 통합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축을 진행했다.

이후 건물 복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으나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타당성재

조사 실시로 설계용역이 2020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지난 7월15일 추가 공사비와 전시 콘텐츠 비용을 반영해 타당성 재조사 결과 총사업비를 기존 255억원에서 466억원으로 82.7% 증액했고, 지난10월27일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총 498억원의 총사업비가 최종 확정됐다. 또한 지난달 인허가 등 행정절차도 마무리됐다.

옛 전남도청은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이번달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복원공사에 들어간다.

복원되는 옛 전남도청 건물은 본관과 별관, 회의실, 도 경찰국 및 도 경찰국 민원실과 상무관 등 6개 동이다.

협의회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건물 구조보강 ▲내외부 창호 복원 ▲도청별관 복원 ▲부지 바다 복원 등 복원설계 주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했다.

또한 복원공사의 상징성, 예술성, 공사 난이도를 고려해 우수한 기술제안과 시공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세대와 연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복원 공간에서 이뤄질 전시로서사, 사진, 영상, 구술 등 1980년 당시

상황과 자료를 토대로 공간별 실물 또는 가상 콘텐츠로 구현해 낼 예정이다.

5·18 당시 없었던 미디어월과 방문자 센터는 현재 위치에서 철거해 재논의 후 다른 장소에 이설할 계획이다.

사업은 내년 말까지 공간별 세부 구현안을 마련하고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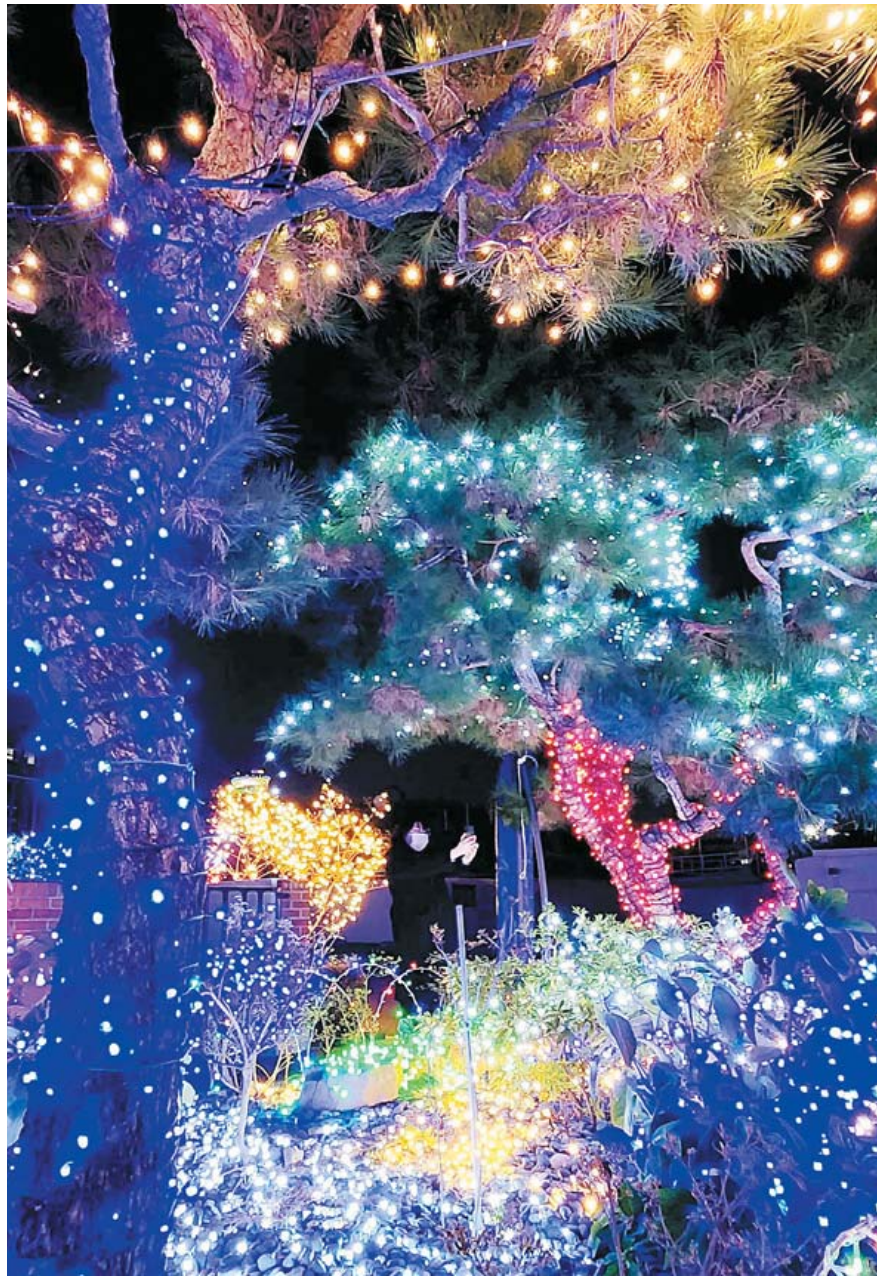
관계자는 “복원사업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추모하고 기억하며 체험,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검증된 사실에 근거한 역사 전달과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부는 오는 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옛 전남도청 별관과 경찰국 민원실, 상무관, 나무 4그루에 대한 3단계 2차 감마선 조사를 실시한다. 국가수와 연계 감증을 통해 국내의 사례조사 및 최종 확정된 탄흔에 대한 보존처리, 탄흔 지도를 제작한다.

내년 9월에는 옛 전남도청 건물에 대한 535개의 흔적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10월에 탄흔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문제부는 1단계 기초조사에서 의심탄흔 535개를 확인했고 2단계 1차 정밀조사에서 의심탄흔 265개에 대한 조사분석을 마무리 하고 13개의 탄두를 특정했다.

/오복기자



환하게 불 밝힌 성탄트리

성금 다가온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아가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사랑과 화합을 기원하는 트리가 각 교회와 성당 등에 설치된 가운데 광주 남구 양림교회에 설치된 성탄트리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김영근기자

여순사건 유족, 국가배상소송 최종 패소

군경 불법 체포·감금 뒤 사형 집행…法 “배상 청구권 소멸”

1948년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 국가배상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여순사건 희생자인 고(故) 장환봉씨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별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철도기관사였던 장씨는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에게서 전남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군사법원은 22일 만에 내란과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고 곤장형을 집행했다.

60년이 지난 2009년 1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장씨가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된 후 살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다.

그로부터 11년여가 지난 2020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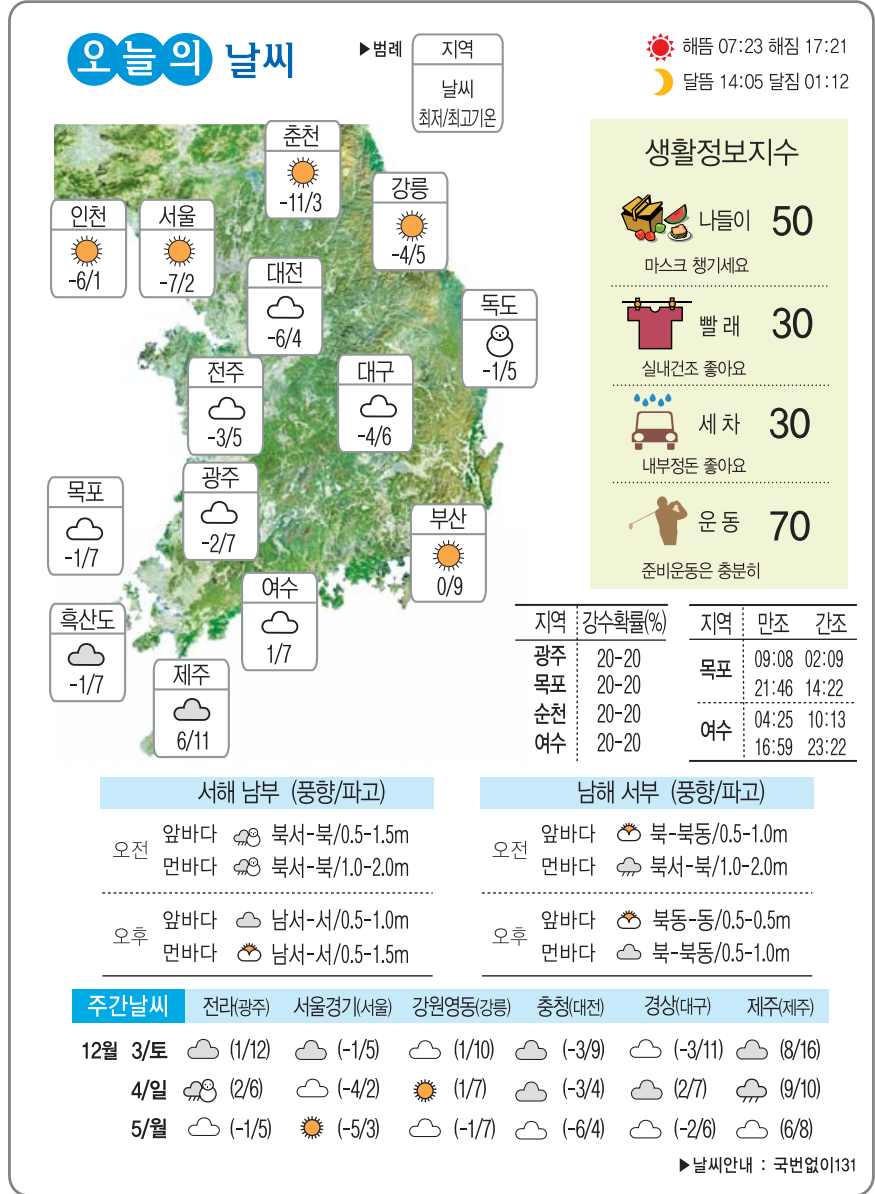
유족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장씨가 사망했으므로 장씨가 살아 있었다면 얻을 수 있었을 소득(일일수입)만큼의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유족이 시효를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법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유족이 청구한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선 “이미 국가 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장씨의 유족은 201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4년 1억4천여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확정받았다.

장씨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가운데 처음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물이다. 유족이 신청한 재심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구, 노인 결핵검진 사업 질병관리청장상

광주 서구가 질병관리청에서 주최한 2022년 노인·노숙인 등 결핵검진 사업 평가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1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대회는 노인·노숙인 등 결핵검진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해 검진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1차 서면 심사에서 10개 보건소가 선정됐으며 2차 우수사례 ppt발표 및 현장심사를 통해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3개 보건소가 뽑혔다.

서구는 노인결핵검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공동주택 전단지 발송, 보건사업 연계 캠페인 실시 등 어르신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왔으며 타부서와 협업체 찾아가는 결핵 및 암검진을 실시해 주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평가대회를 계기로 우리 구 결핵검진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노인결핵검진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협업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안재영기자

대한적십자, 회비모금 캠페인 돌입

대한적십자사가 회비모금 캠페인에 돌입한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1일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적십자 회비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적십자 회비모 모인 성금은 우리 주변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재난구호 활동 및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회비모금 참여는 금융기관 수

납, ARS, 휴대폰 간편결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적십자는 오는 24일 특별 모금방송을 통해 광주전남지사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홍보하고, 자발적인 모금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은 “2023년에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구례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위치 :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작은길 20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구례

문의 : 062)650-2099